

크레이그 키너 박사, 사도행전, 강의 19

사도행전 18장, 바울이 고린도에 옴

© 2024 크레이그 키너와 테드 힐데브란트

이것은 사도행전을 가르칠 때 Dr. Craig Keener입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18장 19회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옵니다.

다행히도, 우리가 때때로 고통을 겪을 때에도 대개는 나중에는 유예될 때가 있습니다. 마케도니아는 바울과 실라에게 육체적으로나 감정적으로 매우 가혹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에 이르자 상황은 많이 진정되었습니다.

아테네에서는 언어적 반대가 있지만 구타나 그런 것에 대한 박해는 없습니다. 그리고 코린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어도 18개월 동안은 꽤 관찮게 지낼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실제로 밤의 이상 중에 그에게 말씀하시고 고린도에서 그에게 격려하실 것입니다. 자, 고린도를 살펴봅시다. 고린도는 아테네 근처에 있었습니다.

고린도는 아가야의 수도였습니다. 사실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이 아가야 교회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은 거기서부터 전파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2절을 보면 그가 그곳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난 이유는 그들이 로마에서 쫓겨났기 때문이라고 나옵니다.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이탈리아에서 유대인을 추방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Suetonius에 의해서도 입증되었습니다. 언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41년 또는 그보다 더 자주, 그리고 아마도 49년에 대해 썼습니다. 3세기의 디오 카시우스(Dio Cassius)는 추방을 입증하지 않습니다. Dio Cassius의 해당 부분은 실제로 누락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대신 글라우디오 치하의 유대인들이 만날 수 없었다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41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더 일찍, 덜 제한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49년에 추방당했습니다. 그들이 추방되었다는 것은 사실상 확실합니다. 수에토니우스와 누가는 둘 다 독립적으로 이 사실을 증언하기 때문입니다. 누가는 수에토니우스 앞에서 글을 쓰고 있습니다.

Suetonius는 확실히 Luke에게서 그것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는 Luke가 제공하지 않은 세부 사항을 우리에게 제공하며 Luke는 아마도 제공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Suetonius는 2세기 초에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는 Dio Cassius가 글을 쓰기 약 100년 전인 Dio Cassius보다 오래 전에 글을 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것이 퇴학이라고 믿을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티베리우스 치하에서도 유사한 추방이 있었는데, 실제로 많은 젊은이들이 추방되었을 뿐만 아니라 로마 군대에 징집되어 싸우러 갔으며 아마도 목숨을 잃었을 것입니다.

티베리우스 치하의 추방에 대한 언급을 토대로 로마에는 약 40~50,000명의 유대인이 있었던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는 아마도 로마 인구의 5%에 해당합니다. 이제 우리가 추방에 관해 말할 때, 추방이란 공식적으로 그들이 추방되었다는 뜻이지 모든 사람이 실제로 떠났다는 뜻은 아닙니다. 종종 로마인들은 공식적인 대중적 선언을 했고, 이 그룹은 로마에서 추방되었습니다.

정말 다들 떠났나요? 아마도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추방이 끝난 후에는 그들이 재산을 되찾는 것이 매우 어려울 것이며 그들 중 일부는 다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포고된 만큼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수에토니우스, 특히 누가의 언어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모든 유대인이 떠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누가는 때때로 사도행전 19장에서처럼 모든 것을 과장법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시아 전체는 에베소에서의 바울의 사역을 통해 말씀을 받았습니다. 확실히 그것은 아시아 전역으로 퍼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실제로 문자 그대로 모든

개인을 의미합니까? 마태복음 4장과 같이 시리아에 있는 모든 병자들을 예수께 데려오니 다 고치시더라.

마태복음 4장에서 그분이 시리아의 모든 병자를 고쳐 주셨다면, 나머지 마태복음에서는 그 모든 병자들을 어디로 데려가십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아픈 사람들은 어디서 구합니까? 그래서, 그런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단지 성경 작가들만이 아니었습니다. 내 말은 모든 것을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것은 일반적인 작가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모든 개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매우 널리 퍼져 있음을 의미합니다. Suetonius는 Crestus라는 사람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크레스토스는 일반적인 노예 이름이었기 때문에 로마에서는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실제로 그것은 친절을 의미하는 그리스어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로마인들이 그리스도 외에는 그 이름에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Christus의 일반적인 로마 철자 오류이기도 했습니다.

Suetonius는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알고 있었지만 그의 소식통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대부분의 학자들은 수에토니우스의 소식통이 크레스토스를 오해하여 로마에서 유대인 공동체를 추방한 소동이 크레스투스 한 사람과 관련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글썄요, 그게 말이 되겠죠. 왜냐면 그리스도란 무엇이었나요? 그리스도는 왕이셨는데 로마에서는 그런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유대인 공동체는 무엇을 두고 논쟁을 벌이게 될까요? 글썄, 그들은 아마도 노예에 관해 논쟁을 벌이기보다는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해 논쟁을 벌일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것이 그들이 논의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적어도 일부 유대인들은 떠나야 했습니다. 확실히, 선동자들은 법령이 내려진 후에 도시를 떠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분쟁에 연루된 사람들은 떠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루크는 왜 이것을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루크가 사과문을 쓰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당신은 요세푸스처럼 변증서를 쓸 때 좋은 선례를 언급합니다.

당신은 나쁜 것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논쟁과 관련이 있다면, 누가 그 점을 강조하고 싶지 않은 데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유대인 신자였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에게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에 의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을 수도 있지만 이미 로마에 있는 유대인 신자였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사도행전 2장에서 로마에서 온 사람들에게 대해 읽었습니다. 로마에는 바울이 그곳으로 가거나 다른 사람들이 제국의 심장부로 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믿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들은 아마도 49년쯤에 추방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이 이야기에 들어맞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게 될 이유로, 이 일은 아마도 1년 정도 걸리든 51년쯤에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또는 브리스가. 바울은 자신의 편지에서 정식 이름인 브리스가와 실바누스(공식 라틴어 이름)를 사용합니다.

누가는 브리스길라와 실라라는 좀 더 비공식적인 이름을 사용하지만 이들은 동일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비공식 버전, 즉 바울이 사용하는 공식 라틴어 버전의 비공식 라틴어 버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다른 곳에서도 발견합니다.

아굴라를 언급하기 전에 브리스가를 언급한 신약성서의 참고 문헌 여섯 개 중 네 개가 있는데, 이는 그녀가 더 높은 지위에 있었음을 암시합니다. 고대에는 종종 예외가 있었지만 남편은 노예로 태어났고 아내는 자유인으로 태어난 것과 같았습니다. 그러면 아내의 이름을 먼저 지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남편이 지위가 높지 않으면 남편을 먼저 지명합니다. 로마 이름의 경우, 로마 이름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어와 라틴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에게 흔히 사용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흔했습니다.

또 로마에도 로마 시민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퀼라(Aquila)가 아마도 로마의 아킬레아 장군(Gens Achillea) 중 해방된 일원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거기서 그의 이름이 유래되었습니다. 누가는 자신이 본도 출신이라고 말하지만 아마도 이전 세대의 성이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브리스가는 로마 가문의 이름인 프리스카 또는 씨족 이름인 프리스카 Gens Prisca에 속한 로마 시민, 유대인 로마 시민이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편지, 로마서 16장 3장부터 5장, 고린도전서 16장을 읽었고, 다른 곳에서도 그들이 가정교회를 갖고 있었다는 것을 읽었습니다.

그들은 가정교회를 인도했습니다. 그것은 꽤 흔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12장에서 가정교회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경제 기반은 무엇이었습니까? 글썄요, 그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없는 많은 이동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행을 떠나는 사람도 많았지만 대부분은 한 마을이나 한 곳에서 평생을 살았다. 그들은 폰투스에서 로마, 고린도, 에베소, 로마로 이동했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아굴라가 그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들 중 두 사람은 로마, 고린도, 에베소, 다시 로마로 왔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편지에서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공예가이자 상인이었습니다.

장인과 상인은 때때로 이사를 해야 했습니다. 상인들은 종종 그랬습니다. 종종 이민자들은 여행하면서 새로운 도시로 갈 때마다 그 수용 도시의 법에 따라 생활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사업을 위해 함께 만날 수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그룹의 외국인들이 함께 모였고 때로는 반자치적인 팔라투마, 즉 자체적으로 정치적 독립성을 갖고 있는 무역 그룹으로 인식되었으며, 다른 그룹으로 인식되거나 자신의 것으로 인식된 인종 그룹, 거주 외국인 공동체로 인식되었습니다. 도시. 무역 집단, 민족 집단이라고 말하면 안 됐어요.

또한 그들이 후원자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제적 여유가 있었음에 틀림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 말은, 보통 사람은 도시에 살았고 실제로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상층부에 살았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윗층에서 그들이 살았던 방이 단지 잠을 잘 수 있을 만큼만 크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요리를 할 수 있는 숯불 화로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 규모는 그리 크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난했습니다.

그들은 후원자가 되거나 집에 있는 사람들을 후원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을 후원할 수 있는 집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웃 중 일부가 위층에 있는 이 큰 공동 주택에 모인다면 서로 다른 방을 연결하는 긴 복도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회의를 할 수 있는 긴 장소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물론 이웃들도 이에 동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곳은 로마에 있는 일부 가정교회가 모였던 곳일 것입니다.

아파트 교회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1층에는 때로는 더 많은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1층에 더 좋은 아파트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자신들의 집에서 교회를 호스팅한다면 아마도 그 목적을 위해 충분히 큰 집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동부 지방 출신이므로 유대인입니다. 그다지 좋은 상황은 아니었지만, 문화적으로 어느 정도 동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은 장인입니다. 도시의 낮은 직업이었지만 그 이상이었습니다. 신분은 낮았지만 농민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들의 독립성, 상대적인 이동성 및 이동성은 어느 정도 수입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고린도에서는 계급 격차가 심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로마에서처럼 바닥층에는 부유한 사람들이 살고 그 위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경제적 계층 측면에서도 어느 정도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고린도의 부자들은 특히 고린도의 특별한 동네인 두개골 근처에 살았습니다. 아마도 더 많은 가정교회가 거기에 있었고 사람들은 그곳으로 걸어갈 것입니다. 첫 번째 가정교회는 아마도 회당 옆 유대인 지역인 티티우스 정의의 집(House of Titius Justice)에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Gaius Titius Justice라고 어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일부 여성은 장인이었습니다. 더 자주 그들은 판매를 도왔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때때로 사업 파트너십을 형성했습니다. 가끔 이 기간에는 아내의 돈으로. 파트너십을 *societas* 또는 *societas*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왜 고린도에 있었습니까? 그러면 바울은 왜 처음부터 고린도에 있었습니까? 글썄, 그것은 매우 중요한 도시였으며 아마도 그리스나 마케도니아 남부의 아가야에서 가장 중요한 유대인 공동체가 있었을 것입니다. 로마적 요소가 두드러지고 심지어 지배적이기까지 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이름인 고린도 출신 그리스도인의 이름 17개 중 8개가 라틴어입니다.

Erastus가 실제로 회원이었다면 Crispus, Titius Justice, Erastus가 있습니다. 소스테네는 그리스 사람이다. 그러나 이름 중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많은 이름이 라틴어로 되어 있습니다.

음, 고린도에는 로마식 이름을 가진 사람들과 라틴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았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로마식 이름을 갖고 있었지만 이 비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편지에 이름이 나오는 사람들 중 3분의 1은 로마식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로마인이 아닌 사람들 사이에서 예상되는 것보다 10배 더 높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들은 로마인 공동체에도 어느 정도 진출하고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 시민이라면 로마 명예 시민이었습니다.

이전에 재향 군인 식민지로 설립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그들은 전체 계층의 누보 부자를 갖게 되었습니다. 참전 용사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그곳에 정착했습니다.

그곳에 정착한 로마 자유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로마는 기원전 146년경에 파괴되었습니다.

고고학에 따르면 그곳으로 이주하여 살았던 그리스인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휴면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기원전 1세기에 카이사르 치하의 도시로 공식적으로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44년쯤 됐을 겁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많은 로마인들이 이주했습니다. 따라서 로마 식민지 개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인들도 시골에서 새로 건설된 이 도시로 이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도 무역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라 외국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곳은 바로 고린도 지협에 있었습니다. 지협은 실제로 운하를 파려고 했습니다.

네로는 운하를 파려고 시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화물을 끌고 다닐 수 있는 다이얼코스(dialkos)라는 장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의 남쪽 끝은 항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돌아다니고 싶지 않았습니다.

너무 바위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탈리아에서 오는 경우 북쪽으로 가서 앞서 언급한 육로인 Via Egnatia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탈리아에서 항해할 수도 있습니다.

더 남쪽으로 항해할 수 있는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를 거쳐 소아시아로 가고 싶다면 아드리아 해를 건너 고린도 지협에 도달할 때까지 이 바다로 항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화물을 마차처럼 끌고 다닐 수 있습니다.

때로는 작은 배를 끌고 건너갈 수도 있습니다. 바퀴가 달린 것에 엮을 때 다이얼코스를 가로질러 드래그하세요. 그리고 디알코스 반대편에는 에게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소아시아로 직접 항해할 수 있습니다. 소아시아는 이 시기에 가장 번영한 로마 속주였습니다. 그래서 소아시아와 로마 사이에는 왕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매우 번영하는 도시였습니다. 고린도전서를 읽었다면 추측할 수 있듯이 성적 부도덕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는 선원들이 몇 달 동안 집에 없는 경우가 많았던 항구 도시에서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습니다. 그들 자신은 종종 노예였습니다. 그것은 종종 사람들이 그런 종류의 일을 하게 하거나 매우 가난한 사람들을 하게 만드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대 고린도에서는 모든 사람이 고린도로 항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화하라는 것은 성적으로 고린도인처럼 행동하라고 했습니다. 초기에는 아프로디테에게 바쳐진 매춘으로 유명했지만, 고고학에 따르면 아크로-코린토스의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실제로 수천 명의 매춘 여성이 수용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아래 도시에 살면서 아프로디테에게 바쳐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옛 고린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새 고린도에는 여전히 부도덕하다는 평판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 시기의 문서에서 찾아볼 수 있고, 항구 도시로서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에베소에도 그런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고린도는 지협에 있는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실제로는 지협에 자체 항구가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리카온이, 다른 한쪽에는 칸크리가 있었습니다. 로마서 16장에서 페보스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1과 2, Cancrri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18장 18절쯤에 그곳에서 배를 타고 떠났습니다. 어쨌든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과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고린도는 다양해졌습니다.

동부 지중해에서 온 많은 외국인들은 자연스럽게 그리스어를 사용했지만, 도시 주변의 사람들은 주로 라틴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비문에 라틴어를 사용했습니다. 도시의 아래쪽에는 깨진 도자기 조각 등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쓴 것은 그리스어였으며 아마도 그들이 자주 말한 것은 그리스어였을 것입니다. 이는 2세기에 다시 유행했습니다.

어쨌든 그들은 Asclepius가 매우 컸고 Cancrui, 음, Isis와 Serapis, 그리고 그리스 숭배인 Asclepius가 Corinth와 Corinth 바로 외곽에서 컸습니다. 그러나 많은 유대인을 포함하여 많은 외국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그곳은 그들이 정착하기 위한 자연스러운 장소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바울이 같은 분야에서 그들과 함께 일하는 것을 봅니다. Paul이 거래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어쩌면 그것은 누가 필요 이상으로 언급하고 싶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엘리트들에게 멸시를 받았기 때문이며, 바울은 실제로 고린도전서 4장 11절과 12장에서 손으로 수고하여 겪은 고난 중에 그것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육체 노동은 철학자들에게 경멸을 받았고, 특히 엘리트들에게는 경멸을 받았습니다. 현자가 임금을 받는 방법에는 네 가지가 있었습니다. 수수료, 즉 수업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중 일부가 지금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수업료를 부과하는 학교에서 일합니다. 후원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가정의 현자로 고용될 수도 있고, 연회 등에서 오락을 위해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나는 예술의 후원자입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글쎄요, 저는 교육의 후원자입니다. 나에게는 나에게 강의하는 가정의 현자가 있고, 그가 말하는 것이 내가 동의하는 한 그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가 내가 동의하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면, 나는 또 다른 것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들은 항상 알려진 것은 아니었지만 때로는 아첨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또 다른 사람은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철학자들은 그것을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낮은 수준으로 여겨졌는데, 냉소주의자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냉소주의자들은 길모퉁이에서 있을 것이다.

그들은 옷 외에는 가진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망토 하나. 구걸용 주머니도 갖고 있었는데, 그중 한 아이가 손으로 물 떠는 모습을 보고 컵을 버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구걸할 주머니와 지팡이를 갖고 있었습니다. 자, 그것들은 때때로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기도 했지만, 어떤 것들은 매우 가혹하고 매우 비열할 수도 있었습니다. 냉소주의자의 경우, 이 냉소주의자 철학자는 실천하겠다고 말했고, 거절당하는 데 익숙해지도록 조각상에 구걸하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실천하라고 조언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고대 문헌에도 이런 내용이 있지만 과장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직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돈을 주지 않으면 그들이 당신을 때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나 당신이 그들에게 돈을 준다면 그들은 당신이 그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어쨌든 당신을 모욕할 것입니다. 냉소주의자들은 바로 그런 식이었습니다.

한 냉소주의자가 연회에 초대되었는데, 그 주변의 모든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진행자의 무릎에 침을 뱉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했다, 왜 내 무릎에 침을 뱉었습니까? 우리는 여기 다른 모든 것이 너무 좋다고 말했습니다.

더 이상 침을 뱉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누군가가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때때로 자신을 성적으로 자극하거나 공공 장소에서 배설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글쎄요, 바울은 분명히 냉소적인 철학자들의 전통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스토아 학파의 생각과 같은 그의 생각 중 일부는 일치하는 영역이 있지만 바울은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개적으로 설교하는 냉소주의자들도 그렇게 했지만 다른 철학자들, 특히 일자리를 구할 수 없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걸하기도 했지만 아마도 가장 멸시받는 종류가 하나 있었습니다. 견유주의자들은 그것을 하고 싶지 않았고, 다른 철학자들은 이것을 하거나 구걸하고 싶지 않았지만 때로는 다른 일부 사람들은 이것이 구걸하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손 작업.

귀족 이데올로기에서 그것은 매우 품위를 떨어뜨리는 일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더 나은 것으로 간주되는 특정 공예품이 있었습니다. 은세공인이 철공보다 나았지만 어쨌든 일을 중시한 스토아학파, 클린테스, 미소니우스 루퍼스 같은 예외도 있었고, 스토아학파의 자급자족 사상도 있었지만 육체노동자 자신이 더 가치있게 여겼습니다. .

그들은 그것에 대해 바울을 무시하지 않았으며 유대인 자료에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스마야. 나는 앞서 힐렐과 스마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글쎄, 이전 세대의 현자들은 스마야와 압탈리온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Shemaiah는 말합니다. 사랑의 수고, Mishneh Abot, 110. Rabbi 또는 Rabban Gamaliel ben Jewish Hanasi, 훨씬 나중에 랍비가 말했습니다. 토라에 대한 연구는 땅의 길과 함께 좋습니다.

즉, 일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수고는 죄를 잊게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때로 게으른 마음은 악마의 작업장이라든가 하는 말을 합니다.

랍비 엘리에셀 벤 아자리아. 토라가 없으면 땅의 길이 없습니다. 땅의 길이 없으면 토라도 없습니다.

나중에 랍비들은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는 것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Rabbi Nehunya ben Hakanah가 있습니다. 토라의 명예를 메면 로마의 명예와 세상의 길에서 해방됩니다.

이후 소식통에서는 교사에게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것은 더 많은 직업이 되었고, 아직 독립적으로 부유하지 않거나 다른 지원 수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나 초기 유대인 소식통은 일부 기본 공예를 경멸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칭찬한 공예품도 있었습니다. 샌들 제작자, 빵 굽는 사람, 목수. 우리는 목수였던 나사렛 예수가 목수였던 유대인 교사를 알고 있습니다.

가족 노동자와 서기관. 서기관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가족세공은 Paul이 그 일을 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매우 흥미롭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장인들이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들의 생산은 주로 가정에서 소규모로 이루어졌으며, 종종 1층에 중이층 아파트와 작은 상점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노예를 포함한 가족이나 가구 구성원을 고용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기업은 최대 100명의 노예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업은 소규모 기업, 가족 기업이었습니다. 평균적으로 직원 수는 6~12명입니다.

근무일은 일출부터 일몰까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그들에게 대화를 위한 많은 기회를 제공했으며 이는 중요할 것이며 이에 대해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일부 상점은 시끄럽고 위험했습니다.

일부 대장장이 상점과 조각가 상점. 예전에 어떤 아파트에서 수작업을 하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가장 싫었던 일은 벽돌 사이를 깎을 때, 모르타르가 울퉁불퉁한 곳을 깎아 균일하게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루 종일, 밤새도록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내 귀는 여전히 같은 소리로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 일을 마친 후에도 한동안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부 상점은 시끄럽고 위험했습니다. 가족 공예가나 샌들 제작자 같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가게가 조용해서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큰 소리로 책을 읽는 동안 제화공 펠리시우스가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곳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와서 대화를 나누기 위해 들어왔습니다.

누군가가 물건을 사지 않는 동안에도 최소한 대화는 나눌 수 있습니다. 상점은 일반적으로 1인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거기서 일했어요.

그들은 그곳에 물품을 보관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상품을 전시하고 판매했으며 가족들은 종종 위층이나 같은 싱글룸의 중이층 아파트에서 잠을 잤습니다. 가족 노동자들과 나는 그것이 Paul이었을 것이라고 제안할 것입니다. 가족 노동자들은 최소한 테이블, 의자, 송곳, 칼, 다른 도구의 모양을 유지하기 위해 돌을 갈고 가족을 처리하기 위한 오일과 흑색 도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Ronald Hawk는 이를 지적합니다. 그는 그것에 대해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상점은 대개 아고라나 시장 근처에 있었습니다.

아니, 음, 네, 시장 근처요. 고린도에서는 베마가 있는 로마 포럼 근처에 있을 것입니다. 베마는 연단이 될 것입니다.

거기에는 총독이 판결과 법령을 내릴 수 있는 장소인 연단도 포함될 것입니다. 장인, 그것은 미세한 상류층과 대규모 하층층의 중간적인 경제적 계층이었다. 그들은 보통 농민만큼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농민만큼 가난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도시 거주자들 사이에서는 그곳의 가장 가난한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주 소수의 상류층도, 상류층에 속하지도 않았습니다. 학습 거래.

일반적으로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가족이나 다른 가족 내에서 견습은 10~13세에 시작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집트에서는 소녀들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비문에 따르면 그것은 심지어 25세부터 시작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랍비들은 유대와 기타 동부 지중해와 더 나아가 동부의 아버지들에게 자신과 같은 직업에서 아들들을 훈련시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초기에 아버지로부터 이 직업을 배웠을 것입니다. 토라 연구와 함께 그 기간 동안 당신은 종종 두 가지를 모두 수행해야 했습니다.

그는 아마도 꽤 부유한 집안 출신이었겠지만, 그 역시 무역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천막 만드는 일을 옷감 만드는 일꾼으로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옷감을 만드는 일꾼들은 바울처럼 로마 시민이 아니었고 다소 시민도 아니었습니다.

사실, 서기 1세기에 직물 노동자들이 타르수스에서 시위를 일으켰습니다. 아마포 노동자들은 다소 시민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소에서 항의를 제기했는데, 이는 바울의 가족이 본질적으로 직물 노동자가 아니었음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장인은 엘리트로부터 노예처럼 경멸당했습니다.

Cicero는 자유인에게 적합한 워크숍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엘리트들은 그들을 미덕이 없고 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육체 노동자들이 자신의 묘비에 새겨진 비문에서 자신을 어떻게 묘사하는지 보면 그들은 종종 자신의 일과 훌륭한 일을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러므로 아마도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많은 회중은 바울이 그렇게 한다고 부정적으로 보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예 멤버들은 그것이 폴을 부끄럽게 만드는 이유가 될 것이다. 알다시피,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당신을 지원하자. 만약 당신이 일하고 이런 육체 노동을 한다면, 그것은 당혹스러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동료들 이에 초대하고 싶지 않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 문제를 다루어야 합니다. 고린도에서는 천막이 중요했습니다. 이스트미아 게임을 위해서는 차양이 필요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있었던 지점 중 하나는 격년으로 열리는 이스트미아 경기인데, 그 경기가 51년 4월이나 5월에 열렸을 때 그곳에 있었습니다. 또한 천막과 천막과 같은 것들은 극장 등에 사용되었습니다. Tarsus에서는 린넨 산업이 매우 컸습니다.

리넨 태베르나콜라는 상인들이 시장 매점으로 사용하고 개인이 차양으로 사용하여 고린도 시장에서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다소의 천막 제조는 지중해 세계 전역에서 유명했습니다. 심지어 Tarsian 린넨의 경우 음역된 것으로 보입니다.

랍비에서는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음역한 것으로 보입니다. Goetia의 Cilician 양모가 유명했습니다. Tarsus는 그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게티아는 매우 유명해서 그곳에서 만든 따뜻한 망토를 콜리시움(collicium) 또는 킬리시움(Cilicium)이라고 부르며 아우구스투스 시대부터 이탈리아로 수입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Paul의 아버지가 그곳에서, 아마도 군대에서 일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그들이 로마 시민권을 얻은 방법이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대 문헌에서 알고 있는 확률을 고려하면, 그들이 해방된 노예의 후손으로 로마 시민권을 취득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논쟁을 벌였고, 나는 그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비록 논쟁이 아직 완료되지는 않았지만, 나는 그들이 더 강력한 주장을 펼쳤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그것은 나의 현재 의견이다.

바울은 아마도 게티아나 아마포로 천막을 짜는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행을 하기에는 너무 큰 도구가 필요했습니다. Paul은 매우 이동성이 뛰어났습니다.

그는 특히 고린도에 도착하기 전에 자주 이사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데살로니가에서도 일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는 텐트와 기타 가죽 제품을 만들고 수리할 도구 가방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천막만들기에 사용된 용어는 가죽세공 전반에도 널리 적용되게 되었다. 가죽으로 텐트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코린트에서는 가죽세공이 필요한 사람들, 특히 여행을 많이 다니는 민간인들이 작업장에서 나누는 대화가 여행자, 상인 등에게 닿게 된다는 뜻이다.

흥미로운 점은 신약성서에 이름이 알려진 고린도인 17명 중 9명이 아마도 상업적인 이유로 여행 중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들은 어떤 수단과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대부분의 유대 신자들이 접근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폴은 그들에게 접근할 수 있어요. Ronald Haack이 이에 대해 가장 많은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여기서 저는 Ronald Haack을 따르고 있으며 어떤 지점에서는 가족세공 측면에서 Ronald Haack의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가족세공에는 재단과 재봉이라는 두 가지 작업이 있었습니다. 가족의 자연스러운 힘을 최대한 활용하여 긴장과 당김을 가장 잘 견딜 수 있도록 가족 조각을 자르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시침질 스티치, 솔기 스티치, 별채 스티치로 함께 재봉하는 방법도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두 개는 솔기가 방수 처리되어야 하는 경우입니다. 견습생은 견습 과정을 마친 후 자신만의 가족세공 도구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글썄요, 가족 세공은 아마포 제작 측면에서 확실히 천막 제작보다 이점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텐트 만들기는 어느 쪽이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옷감, 섬유 산업에 있어서는 그다지 시끄럽지 않았고, 도구도 그렇게 시끄럽지 않았으며, 거기에서 더 많은 대화를 나눌 수도 있었습니다. 시장의 종교적 환경.

그런데 고린도 시장 곳곳에는 공공 동상이 있었습니다. 포세이돈, 아폴로, 아프로디테, 헤르메스, 제우스. 당신이 대다수의 기독교 문화권에 살고 있다면, 기독교인들이 다른 문화에서도 번영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대다수의 비기독교 문화권에 살고 있다면, 복음을 전파했던 최초의 기독교인들도 역시 그렇게 해야 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와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들과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고라에 있는 대부분의 성소에는 성소가 있었고 대부분의 성소는 아고라에 있었으며 에베소 아르테미스의 성소가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아르테미스는 그리스 여신이었고 에베소 버전의 아르테미스는 특히 유명했습니다. 실제로 고린도에도 에베소의 아르테미스의 성소였습니다.

디오니소스의 이미지가 있었고, 그 중심에는 아테나가 있었습니다. 아고라 위에는 아우구스투스의 여동생 옥타비아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당신이 돌아서는 곳마다 이교주의를 상기시키는 것들로 둘러싸여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환경에서 그리스도인이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직장에서 이야기. 사람들은 하루 종일 일해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소크라테스와 다른 사람들이 구두 수선공이나 구두 가게에서 정치와 철학을 토론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말과 험담을 중시하는 문화였습니다. 사람들은 이웃과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창문 밖으로 몸을 내밀고 있을 것입니다.

거리에서는, 옆집 손님이나 가게 주인,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주점에서 함께 식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로마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에서 요리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시장에서 파는 빵이나 시장에서 사는 물건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식사를 하려면 거리로 내려가 선술집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시장에서 그런 식으로 먹을 수 있어요. 사람들은 선술집 레스토랑 등에서 동료들과 비즈니스 점심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견유주의자들은 그러한 장소에서 지적 담론에 참여했으며 다른 철학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음, 직장에서 선교 설교를 하는 거죠.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34절에서 자신의 오랜 시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28, 30. 데살로니가전서 2.9, 고린도전서 4.12, 고린도후서 12.14. 일부 본문에서는 그가 밤낮으로 사역했다고 말합니다. 일부 텍스트에서는 그가 밤낮으로 일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는 동시에 둘 중 일부를 수행했을 수도 있습니다. 낮과 밤이 밤새도록 잠을 자지 않았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낮과 밤의 일부에 무언가를 한다면 그것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는 풀이 일하지 않을 때에도 다른 일을 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가 한 일의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자금이 들어오기 전에도 그는 이 일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무역 단체, 때로는 무역에 종사하는 가족들이 길드로 함께 조직하여 도시 전체나 거리를 통제할 수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고대 도시에는 Glass Street, Incense Street, Perfume Street, Jewelers' Plaza, Cobbler's Marketplace, Fishmonger's Forum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Yale 역사학자인 Ramsey McMullen에게서 얻었습니다. 사람들이 묻는 가장 기본적인 질문 중 하나는 어디에 사시나요?였습니다. 그 사람의 직업도 식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너 뭐하니? 그리고 사람들이 자주 묻는 대답은 이발사 사이에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람들의 비문이나 묘비에도 새겨졌습니다. 모든 것이 갖춰진 백화점이나 잡화점이 있었지만 일반적으로 원하는 특정 상품을 구입하려면 마을의 어느 구역으로 가야 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많은 사람들은, 적어도 서구에서는 믿기 어려울 것이고, 아마도 다른 많은 곳에서는 믿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같은 직업,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끼리 우호적인 협력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들은 공통 공급 라인을 갖고 있었고 치열한 경쟁 대신 함께 일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무역 길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주로 사회 단체였습니다. 그들은 대략 한 달에 한 번 정도 만났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그들은 이것을 위해 함께 모였을 때 보통 혼자서 사먹는 것보다 다소 좋은 식사와 와인을 마시곤 했습니다. 그들은 창립자, 후원자 또는 수호신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함께 모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협회로서 그들은 회원 중 누구라도 장례를 치르기 위해 함께 뭉쳤습니다.

누군가가 죽으면, 모두가 그들의 장례식을 치르기 위해 돈을 쏟습니다. 당신이 죽을 때 이 모든 비용이 드는 것은 아닙니다. Ramsey McMullin은 그 모임이 정육점이든 청소원이든 무엇이든 간에 모든 모임이 모임을 열었다고 지적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통합 순간에 필연적으로 선택한 신에 대한 기도와 함께 인용된 것입니다.

나무꾼에게는 실바누스(Silvanus)일 수도 있습니다. 식당 주인들에게는 박카스일 수도 있다. 어쨌든 아퀼과 브리스길라, 주위에 우상이 있는 것과 이방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식사에 참여하거나 이교 신에게 감사를 드리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아마도 가죽공 길드에 가입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들이 도시의 가죽 노동자 구역에 살았든 아마도 그들은 도시의 유대인 구역에 사는 것을 선호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탈리아에서 추방된 사람들의 수가 많기 때문에 주택은 여러분이 얻은 것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들은 그러한 상황에서 다른 유대인이 그들과 함께 머무르는 것을 기뻐할 것입니다. 특히 그들이 모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생활 환경. 글쎄요, 이것들은 고린도보다 로마에서 더 잘 알려져 있지만, 로마 식민지였던 고린도는 여러 면에서 로마 건축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생활 조건의 일부입니다.

이탈리아에서는 더 부유한 사람들이 맨 아래에 거주하는 공동주택이 종종 있었습니다. 덜 부유한 사람은 더 높은 곳에 살 것이다. 가장 가난한 사람들은 꼭대기에 있는 작은 방이나 작업장 위의 작은 다락방에서 살곤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높이가 높아질수록 안정성도 조금 떨어졌습니다. 아파트 건물은 다소 구불구불해질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강력한 건축 법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여러 가지 것들을 조롱하는 청소년인 그는 풍자가였습니다. 어느 날 로마 어딘가에서 건물이 무너지거나 타는 소리를 듣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숯불 화로를 조심하세요. 물론, 그들이 위생을 위해 한 일.

로마는 배수로로 유명했지만 물은 기껏해야 맨 아래층까지만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위층으로 펌핑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윗층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한 일은 물건을 담을 수 있는 컨테이너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종종 그들은 그것을 계단 밑에 보관하곤 했습니다. 시내 쓰레기장으로 가져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화장실에 가면 변기통에 넣어두더군요. 사람들은 그것을 창밖으로 비우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리고 가끔 그랬던 것처럼 그것이 행인에게 부딪힌 경우, 그것이 누구의 창문에서 나왔는지 알아낼 수 있다면 실제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것은 종종 거리에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도 있어서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멀리 가고 싶지 않거나 그렇게 멀리 갈 시간이 없다면 요강을 이용하세요. 따라서 성가신 세입자를 제거하기 위해 히트 스쿼드를 갖춘 빈민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너무 많이 불평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는 대규모 부동산에 임차인이 있는 농촌 지역에서 더 많이 실행되었습니다. 파피루스에 남아 있는 비즈니스 문서에 관한 가장 자세한 내용을 보유하고 있는 이집트에서는 때로는 단칸방 집에 20명이 모여 있을 때도 있습니다. 비즈니스 문서에 따르면 유년기 사망, 때로는 사람들이 방의 4분의 1을 임대하거나 소유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매우 가난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읽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매우 가난했습니다. 파피루스를 통해 재구성할 수 있는 한, 이집트의 어린 시절 사망률은 50%에 가까웠을 것입니다.

많은 아기들이 버려졌지만 이집트인들은 이를 믿지 않았고 아기들을 입양하거나 로마법에 따라 노예로 키울 수도 있었습니다. 고린도의 회당은 4절에서 읽습니다. 비문은 회당에 대해 말합니다. 고린도에서 발견된 비문에는 '히브리인의 회당'이 그리스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날짜는 불확실하며 바울 시대보다 늦은 날짜임이 거의 확실합니다. 렌즈콩이 버려진 곳일 수도 있지만 아고라 근처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곳에 유대인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2세기에 트리포는 그곳의 유대인 교사였습니다. 저스틴이 그냥 꾸며낸 게 아니었다면, 아마도 그가 직접 대화를 썼을 지라도 그가 지어낸 게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유대인 공동체가 있었다는 것은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그것에 대해

전체적으로 알 수 있을 만큼 고린도에서 충분한 세부 사항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말입니다.

로마 역사가들이 자주 하는 일은 비문 등을 제외하고는 더 많은 서술적 세부 사항이 없는 일부 도시에 대한 세부 정보를 얻기 위해 종종 사도행전을 출처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 우리는 고린도에 대해 많이 알고 있지만 그곳의 유대인 공동체에 대해서는 많이 알지 못합니다. 행 18장 5절. 실라와 디모데가 와서 데살로니가 신자들에게 그들이 실제로 잘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그 일로 인해 매우 기뻐했고, 바로 그 때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위해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에서도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린도후서 11장에서 그 내용을 읽었습니다.

고린도 교인 중 일부는 그가 자기들을 의지하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있으며, 그들은 그가 빌립보의 지원을 받아들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말하기를, 보십시오, 나는 당신을 섬기기 위해 다른 교회들의 것을 강탈했습니다. 그는 과장되게, 아이러니하게, 뭐든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린도 교인들이 그를 후원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이 그의 후원자이고 자신이 그들의 고객인 것처럼 행동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이 말해야 할 것을 말할 자유를 원했습니다. 사실 저는 목회자로서, 부목사로서 월급을 받은 적이 없지만 다른 많은 일들로 월급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목회자와 부목사들이 월급을 받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가르치는 데 대한 대가를 받습니다. 글을 쓰려면 더 많은 노력과 연구, 글쓰기가 필요하지만, 나는 글쓰기에 대한 급여보다 가르치는 급여를 더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이 교실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런 다음 나는 지금 이 모든 종류의 세부 사항에 대해 떠드는 것처럼 떠벌립니다. 하지만 어쨌든 나에게 돈을 지불하지 말라고 말하지 마세요.

어쨌든, 어느 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건 좋은 일이니까요, 그렇죠? 그러나 어쨌든 바울은 빌립보로부터 은사를 받고 나서 그는 이 일을 너무 많이, 적어도 풀타임으로 하는 것을 그만둘 수 있었고, 사역의 일에 전적으로 자신을 헌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당에서는 상황이 다소 분열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의 말을 믿고 동의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 중 일부는 바울이 회당을 맡지 않습니다. 그는 떠난다. 그러나 그들은 옆집에 있는 Titius Justice의 집으로 갑니다. 그는 분명히 부유하고 이방인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회당 기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사람들을 기증자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들을 기증자로 받아들이면 그들은 화를냅니다. 어쨌든 회당은 분열되었지만 바울은 자신이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옳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정의의 티시오가 로마서 16장 23절에서 고린도 전체 교회의 주인으로 언급된 가이오와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지만요. 어쩌면 그것은 그가 원래 호스트였음을 의미할 수도 있고, 이 경우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단지 그가 Paul처럼 오는 사람들을 호스트한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그가 매우 부유하여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고, 아마도 모든 사람이 정기적으로 모일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부유한 곳인 고린도 시 외곽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23절의 정확한 의미에 대해 논쟁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이우스는 티티우스 정의(Titus Justice)와 같은 공식적인 서사적 제목이라기보다는 친숙한 대명사였습니다. 그래서 Paul은 그를 친숙한 수준에서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누가는 예를 들어 Titius Justice라는 공식 명칭을 사용할 것입니다. 동일 인물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그들은 세 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 노멘 인크니툼(Titus Justice)은 아마도 이 사람이 로마 시민임을 나타냅니다. 아마도 그는 율리우스 카이사르 치하에서 뉴 코린트에 정착한 로마 가문 출신일 것입니다. 그들이 처음 만났을 집.

글쎄, 넓은 로마 집에서 연회를 위한 가장 좋은 방이었던 평균 트리클리니움은 코린트를 포함해 평균 약 36제곱미터였습니다. 이상적으로는 약 9명 정도 수용할 수 있었습니다. 12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딱 채우면 실제로 더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 있지만 연회를 위해 소파에 리클라이닝을 눕힌다는 점에서는 9명에서 12명까지 가능합니다. 일등석 좌석이나 리클라이닝은 트리클리니움에 속합니다. 글쎄요, 오고 싶어하는 다른 사람들이 있다면 어떨까요? 글쎄요, 당신은 여전히 아트리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일반 가구를 사용하면 약 30~40명을 수용할 수 있지만 중앙에 천장이 열려 있기 때문에 바닥 중앙에 빗물을 모으는 임플루비움의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30~40명이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롬 머피 오코너(Jerome Murphy O'Connor)는 이를 특히 강조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든 집이 똑같지는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적어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일종의 야구장을 제공합니다. 사도행전과 바울의 글에 나오는 고린도인들과 그들의 가족을 모두 합치면 약 50명 정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50명이 훨씬 넘었을 텐데, 그 중에는 교회 지도자나 지위가 높은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50명의 사람이 있어도 아마도 여러 개의 가정교회가 있었을 것이고, 가이오의 전체 교회에서 그들을 모두 함께 모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믿을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23절을 어떻게 읽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코린트 바로 외곽에 있는 게자리(Cancree). 집에서 모이는 것은 가족적인 분위기를 제공하는데, 그것은 정말 유용합니다.

내 말은, 그것이 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전부이기 때문에 단지 유용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날 우리가 소그룹이라고 부르는 관계를 구축하기 때문에 유용합니다. 여기에는 역동성이 있으며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언급한 것 중 일부의 역동성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은 모두 한 사람씩 예언할 수 있습니다.

1,000명 규모의 교회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100명이나 200명 정도 되는 교회에서보다 가정교회에서 우리가 서로에게 봉사하고 더 대면하는 방식으로 서로를 알아갈 수 있는, 각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를 갖고 있다는 역동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대형교회에서도 소그룹을 두어 어떤 방식으로든 역동성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 모일 때 우리가 하는 일은 관계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관계적이지 않다면, 우리는 초대 교회가 가졌던 역동성의 핵심 부분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면 안 된다는 뜻은 아니지만, 거기에 추가할 수 있는 게 또 있어요. 18장 8절에 보면 크리스보는 회당장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가 온다. 회당장으로서 그는 아마도 부유한 사람일 것입니다. 종종 회당 지도자들은 회당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자금을 사용합니다.

그들은 종종 그렇게 해서 회당장이나 회당장이 되었습니다. 18장 9절과 10절에서 그리고 또한 그가 세례를 받았다고 말할 때, 고린도전서 1장에서 바울은 마치 내가 그리스보와 가이오에게 세례를 주었다고 말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세례를 주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이 사람에게 세례를 줬어요. 그리고 그는 자신이 자신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마치 당신이 세례의 요점을 놓친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위한 것입니다. 그들은 분열되었습니다. 그것은 때때로 가정교회의 한 가지 단점입니다. 사람들을 더 많은 소그룹으로 나눌수록 더 많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8장 8절에는 크리스보가 세례를 받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고고학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장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분수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린도에는 곳곳에 수영장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신들에게 바쳐졌습니다. 그리고 사로닉 만(Saronic Gulf)에도 있고 에게해(Aegean Sea)도 있습니다.

내 말은, 당신이 사용하고 싶은 세례 방법이 무엇이든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사도행전 18:9-10의 성경적 환상과 꿈은 특히 신약에서 하나님이나 천사가 말하는 것과 관련이 있지만 배타적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요셉의 꿈, 바로의 꿈, 다니엘이 꾸는 꿈, 그리고 느부갓네살의 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교도와 종종 초기 유대인 자료에는 죽은 사람이 나타나는 꿈이 있었습니다. 신약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마케도니아 출신의 한 남자가 "여기로 오세요"라고 말하지만 그가 사망했다는 징후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쨌든 바울은 하나님이나 천사가 나타나는 원형적이고 이상적이고 최고의 환상과 꿈 중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사도행전에서 다른 경우처럼 주 예수께서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것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꿈, 제가 예수님을 직접 본 꿈입니다. 그는 정말 친절해요. 그는 정말 은혜롭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를 더욱 사랑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보증 진술에서 일반적이며 오라클에서도 매우 일반적입니다.

종종 하나님이나 천사가 깨어 있는 환상에서든 꿈에서든 누군가에게 나타날 때, 그들이 가장 먼저 하는 말은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꿈에서 예수님을 뵈는 것도 한 가지인데, 어떤 사람들은 천사를 보았다고도 합니다.

글쎄요, 저는 어떤 사람들이 어떤 종류의 영광 속에 그들에게 나타나는 천사들을 실생활에서 본 적이 있다고 믿습니다. 나는 그것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만약 내가 그것을 경험하게 된다면, 나는 아마도 천사가 나에게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대부분의 일반적인 경험 영역 밖에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사도행전에서는 또다시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고 말합니다. 나는 단지 꿈을 꾸다. 글쎄, 나는 늙었지만 어쨌든 눈을 뜨고 실제로 무엇인가를 본 환상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환상이 우리가 계시록에 대한 모든 주장에 대한 척도를 제공하는 성경에서 아는 것과 일치한다면 그것들도 성경적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1절. 바울은 그곳에서 18개월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고린도인들에게 편지를 쓸 때, 비록 그들이 떠난 이후로 몇 가지 사항이 변경되었지만 그들은 이미 바울의 가르침 중 일부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고린도에서는 시원한 여름을 보내기 위해 그곳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만나는 공기의 흐름이 있었습니다.

어떤 냉소주의자는 거리에서 살았기 때문에 계절에 따라 아테네와 코린트를 오갔다고 합니다. 이스미티아 게임은 51년 4월부터 5월까지 열렸으므로 바울이 그곳에 있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1812년에 바울은 아가야에 있었습니다.

고린도는 그 수도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장에 따르면, 우리는 이 일이 고린도를 넘어 아가야의 다른 지역, 즉 그가 말하는 아가야 교회들로 퍼졌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가야 총독은 총독이었습니다.

그들은 기원전 27년부터 서기 15년까지, 그리고 서기 44년부터 그들 자신의 총독을 가졌으므로 이 시기에 하나를 가졌을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빠른 길에 있는 누군가는 법무관에서 총독으로, 총독처럼, 영사로, 물론 황제 밑에서

로마를 책임질 사람들 중 한 사람으로 갈 것입니다. 갈리오는 1812년에 여기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우리는 로마 문학의 다른 곳에서도 갈리오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그는 앞서 언급한 유명한 스토아 철학자 소세네카(Seneca the Younger)의 형제였습니다. 그는 연설가 세네카, 장로 세네카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세네카 출신인 스페인 코르도바에서 태어났으나 방금 언급한 부유한 수사학자의 양자가 되어 이름이 바뀌었다. 원래 그는 Marcus Aeneas Novatus 였지만 이제 그의 이름은 Galio입니다. 그리고 그는 매력과 재치로 유명했습니다. 이 구절에서는 매력보다는 재치로 더 유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매력과 재치로 유명했습니다.

그의 친구들은 그를 좋아했습니다. 분명히 그는 51년 4월에 고린도로 파견되었고, 여러분이 예상한 대로 그해 7월 1일에 그의 직책을 맡았습니다. 따라서 51년에 바울이 고린도에 있었을 때 데이트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그가 갈리오 앞에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유대인을 추방하는 글라우디오의 법령이 있는 후인 49년 말에 도착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그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미 그곳에 있거나 49년 말이나 50년 초에 도착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7월 52일 이전에는 일반적으로 총독이 2년 동안 그곳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나 갈리오는 임기를 마치지 못했습니다. 그는 임기를 1년도 채 마치지 못했습니다.

7월 52일 이전에 그는 병이 나서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매우 정확합니다. 이런 것들이 아주 잘 어울립니다.

49년에는 클라우디우스 밑에서 추방되었고, 지금은 갈리오가 총독으로 있는 51년입니다. 루크 같은 사람이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 있는 참고 자료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이것은 현대 고고학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지만, 누가 도서관 책장을 꺼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책은 없었습니다. 글쎄, 이것은 이 날짜의 총독이었으며 따라서 이것은 바울에게 적합합니다.

오히려 이것은 바울에게서 배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법 전문가인 AN Sherwin-White는 신약성서에서 로마법과 로마 사회에 관한 책을 썼고, 이와 같은 세부 사항에 대한 사도행전의 정확성에 대해 매우 흥분했습니다. 그러나 51년은 또한 불안한 시기였습니다.

우리는 당시 고린도에 식량이 부족하고 소란이 심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불안의 일부였습니다. 그는 베마 앞으로 끌려왔습니다.

고린도 포룸의 동쪽 끝, 로마의 회랑처럼 고린도 포룸의 낮은 테라스가 내려다보이는 열주 상점 앞에는 베마가 있었습니다. 이 높은 플랫폼은 길이가 거의 500피트에 달했습니다. 그것은 제국에서 가장 큰 재판소였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에서 이방인 법정에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에 대해 말할 때 그들은 아마도 베마를 상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아우구스투스 황제 시대에 지어졌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단지 의례적인 일과 몇 가지 공식적인 문제에만 사용되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재판은 거기가 아니라 행정 건물에서 열렸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쨌든 바울은 확실히 베마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베마, 즉 그리스도의 심판대, 하나님의 심판대에 대해 썼습니다. 그는 고린도에서 글을 쓸 때 로마서 14장에 대해 썼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서 그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관해 기록했습니다.

법정은 매우 시끄러웠고 양쪽에서 분노에 찬 고함을 지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다음 회기에서 바울이 갈릴레오 법정으로 끌려가는 동안 우리는 이에 대해 다룰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행전을 가르칠 때 Dr. Craig Keener입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18장 19회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옵니다.